

이주현 · 이부영의 논문 ‘주역 점(占)의
 실제 체험’에 대한 박연규 교수의
 논문평(심성연구 38(1), pp208-224)에 관하여(1)

A Response to Professor Park YG’s Commentary
 (Sim-seong Yeon-gu, 38(1), pp208-224) on the Article:

Lee JH and Rhi BY;

The Actual Experience of the Oracle of the I Ching (1)

이 주 현*

이부영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의 에세이풍의 체험기를 학술지인 심성연구에 실어주신 편집자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글의 부제처럼 아버지 영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쓰고 다듬었지만, 이부영 선생님과 논문 심사위원들의 정확한 지적을 통해 좀 더 깊게 내 자신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과정을 겪을 수 있어 배움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분석심리학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의 글에 대해 평생 주역을 학문적으로 공부하신 박연규 교수님께서 흔쾌히 논평에 응해주시고 주역학자로서 고견(高見)을 주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에 단순한 합리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삶의 깊이 속에서 빠져 허우적대는 중생에게 구명줄처럼 다가오는 상징을 우리는 자신의 ‘꿈’을 통해서 가장 흔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뜻을 이해하고,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상징에 다가가는 과정을 해석

*아이나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Address for correspondence: Ju-Hyun Lee, M.D., Inarae Psychiatirc Clinic, 378 Olympic-ro, Songpa-gu, Seoul 05544, Korea

Tel: +82-2-415-4266, Fax: +82-2-419-4265, E-mail: 90mind@naver.com

이라고 한다면 그 해석은 단순히 사고 기능뿐만 아니라 감정, 감각, 직관 기능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에 대한 인류의 다양한 경험을 모아서 중첩되는 부분을 찾아가는 확충(amplification)의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래서 자신의 콤플렉스(complex)에 사로잡혀 자의적으로 상징을 해석하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콤플렉스와 대면하고 그 콤플렉스를 이해하고, 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분석심리학자는 확충을 위해 여러 지역의 신화, 민담, 종교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합니다. 주역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담아온, 방대한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역의 상징체계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그 문화적 토대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극동 아시아권의 분석심리학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용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 문화권의 요가를 걸잡기식으로 흉내 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자신의 문화권의 전통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도달하기를 권한 충고처럼 우리는 동양 상징체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서양의 신화와 민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달한 지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박연규 선생님께서는 '임괘 분석의 일반론'에서 주역의 괘에 대한 이해의 방법으로 임괘의 괘사와 단사, 상사, 효사, 앞뒤의 괘, 동효에서 변화하는 지괘, 착종되는 4개의 괘까지 같이 살피는 전통적인 주역 해석방법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꿈의 드러난 원형적 상징의 이해를 위해 상징의 그물망을 확충하여 그 뜻을 찾는 분석심리학의 방법론과 점술로서 얻어진 주역 괘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법론의 유사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저의 임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에 치우쳐 그 뒤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면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깊이 수궁하면서 양면을 모두 품고 있는 상징을 자신의 바람대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이성적 사고만으로 소화시키기 어려운 주제 앞에서 박연규 선생님이 지적한 바대로 “슬픔과 회복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밟지 못하고, 화해와 순종을 먼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기모순”을 보이는 저의 의식적 태도를 임괘라는 상징을 통해 비쳐 보고, 그 모순이 함께 만나(joint attention) 공존하는 임(臨)(만날, 다다를 임)괘의 깊

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나를 둘러싼 인연의 신비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에 대해 불가지론의 신중함에 만 머물 수 없게 한, 저의 감정이 유물론적 정신과 의사의 사고의 벽과 부딪혀 생겨난 저의 꿈과 주역 점괘에 대한 탐구는 아직 지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저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시는 목소리가 들린다. 목소리는 밝은 편이었다. 나는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들리지 환청이 들리는 것인가? 내가 미친 것인가? 생각하다가 잠에서 깬다.

저는 이날 낮이 되어서야 남동생과 어머니를 통해 오늘이 아버지의 생신임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망자가 나타나는 꿈에 대해 폰 프란츠 여사가 용에게 가져가 해석을 청했을 때 이것은 실제로 망자가 다녀간 것으로 객관단계의 해석을 한 것이 완전히 자신의 의견과 일치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꿈도 객관단계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꿈이라고 이부영 선생님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꿈은 저의 의식이 아직 유물론적 정신과 의사의 태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박연규 선생님의 말처럼 저승은 시간적으로 앞뒤로 멀리 있지 않고, 우리들 바로 옆에 있을지 모릅니다. 저승에서도 아버지는 아직도 부족한 큰이들을 염려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